원더풀 광주…“우정·감동 우리 함께해요”

선수·임원·취재진이 ‘#Gwangju’ 인스타 통해 전하는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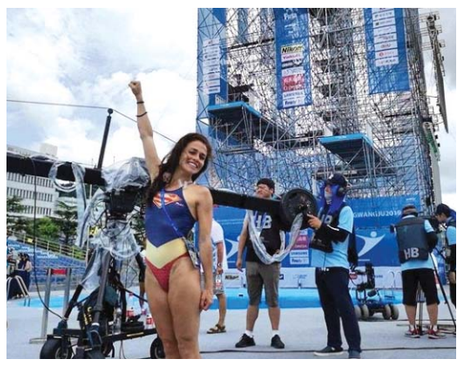
수영의 불모지로 꼽히는 광주는 2019년 7월 세계 수영의 중심지가 됐다.

지난 12일 개막해 28일 끝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4개국 2538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광주를 찾은 선수·임원·취재진은 인스타그램에 ‘#Gwangju’를 적어 생생한 현장과 광주를 전세계로 알렸다. 우정과 감동 그리고 웃음 가득했던 지난 2주간의 여정을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만나본다.

〈1〉

〈2〉

〈3〉


〈4〉

〈5〉

GWANGJU 2019 Fina WORLD CHAMPIONSHIPS

1. #좌절은_없다 #마스코트 #수리달이

터키의 경영 선수 예카테리나 아브라보나는 ‘선수촌 생활’이라는 설명과 함께 대회 마스코트 수리, 달이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경기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는 “지난 10일 눈이 심각하게 부었는데 잘못된 항생제 복용으로 회복이 되지 못했다. 주종목인 200m 배영에 맞춰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고, 전체 42명 중 28위에 들어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2.#휴식 #나들이 #무등산

치열한 경쟁의 시간을 잠시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간 이들도 있었다. 네덜란드 여자 수구대표팀은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을 선택했다. 네덜란다의 비비안 세브니치는 “오후 시간을 잘 보냈다”며 동료들과 무등산에 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2018 유럽피언 챔피언십 금메달, 2019 유로컵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네덜란드는 이번 대회에서는 7위의 성적을 안고 돌아갔다.

3. #시작 #목소리 #생중계

경기장이 아닌 미디어석과 중계석에서도 각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선수’가 뛰었다. 전 세계에서 찾은 300여 명의 취재진은 발빠르게 광주의 소식을 전했다. 호주 대표팀으로 챔피언 자리에도 올랐던 바비 헐리도 마이크 앞에 앉아 호주 선수들의 선전 소식을 고국에 전했다. 경영 종목이 시작됐던 지난 21일 “대회 첫날 시작이다!”는 글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다.

4. #슈퍼맨 #인간새 #하이다이빙

이번 대회 히트 종목은 단연 ‘하이다이빙’이었다. 하늘에서 초인적인 몸짓을 펼치는 하이다이빙은 관중들에게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짜릿한 묘미를 선사했다. 지난 24일 브라질의 발렌트 재클린은 슈퍼맨 복장을 하고 여자부 3·4차시기에 출전해 눈길을 끌었다. 9위로 경기를 끝마친 발렌트 재클린은 “어떤 것을 시도할 용기가 없었다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 수조 앞에서 슈퍼맨의 시그니처 포즈를 취했다.

5. #마지막게임 #함께 #우승

이번 대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경기가 진행된 종목은 수구다. 지난 14일 여자 예선을 시작으로 27일 남자부 결승이 진행됐다. 그리고 26일 열린 여자 결승에서 미국은 스페인을 11-6으로 꺾으면서 대회 3연패를 이뤘다. 미국 대표팀의 애슐린 존슨은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강하다”며 마지막 점프와 마지막 게임을 이야기하며 동료들이 손을 한데 모은 사진을 올렸고, 우승을 이뤘다.

6. #바다 #일란성 # 해군

브라질 오픈워터 여자대표팀 아나 마르셀라 쿤하는 이번 대회 오픈워터 전 종목을 완주해 금메달 2개를 목에 거는 기염을 토했다. 그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해군에 입대한 현직 여군으로 지난 19일 오픈워터 25km에서 우승한 뒤 자신의 SNS 계정에 “전설? 이제 너희들이 판단해”라는 게시글과 함께 자신이 획득한 금메달 두 개로 눈을 가린 익살스러운 표정의 사진을 게시했다.

7.#충장로 #외출 #수영의 꽃

수영과 무용이 어우러진 ‘수중발레’로 불리는 아티스틱 수영은 광주세계수영수권대회의 개막일인 12일 솔로 테크니컬과 듀엣 테크니컬을 시작으로 지난 20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아티스틱 수영 선수인 멕시코의 은즌자 카브레라는 팀프리(FT), 팀 테크니컬(TT) 종목에 출전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은즌자 카브레라는 경기를 멕시코로 출국하기 전 광주시 충장로 거리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고 “광주의 거리를 걷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라는 글을 남겼다.

8. #셀카타임 #마린보이 #홍보대사_미국대사

미국 선수들의 응원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셀카 타임! 주한미국대사관 공식 인스타 계정에 올라온 “경기장에서 누굴 만났을까요?”라는 글. 정답은 ‘마린보이’ 박태환이었다. 해리스 대사가 대회 홍보대사인 ‘마린보이’ 박태환과 셀카를 찍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 계정은 대회 개막 날에는 마스코트 인형 사진과 함께 출전 선수들의 응원글도 담았다.

9. #끝 #마무리 #집으로

17일간의 뜨거웠던 열정의 시간. 치열한 경쟁의 시간을 이겨낸 선수들에게 ‘마지막’은 홀가분한 기쁨이다. 캐나다의 경영 선수 에마 오크로니언(오른쪽)은 대회전 “캐나다를 대표해서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나가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대표 발탁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대회 마지막날 물속에서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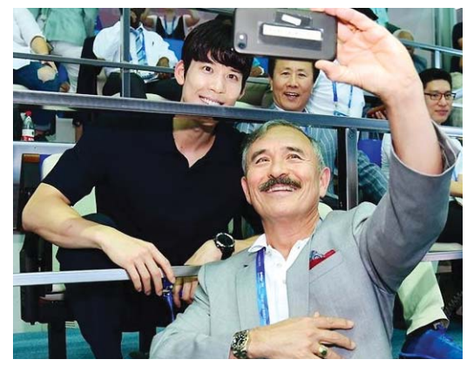
10. #물구나무#균형 #조화

김수지, 우하람 등이 출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다이빙 종목. 다이빙 스프링보드 3m 싱크로와 혼성 3m, 10m 플랫폼에 출전한 브라질의 타카기 타미가 지난 18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인근에 위치한 월계동 무양서원을 찾았다. 그는 입구 정문에 태극 문양을 따라하는 듯한 물구나무 동작을 취하면서 사진을 찍은 뒤 “조화를 찾아서…”라며 사진을 올렸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6〉

〈7〉


〈8〉

〈9〉

〈10〉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1,000㎾) 중형(1,000㎾~3,000㎾) 대형(3,000㎾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Nim e Bbong Solar Energy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